

■ 연구원 소식

○ 2019년 1차 역사문학기행 안내(신청기간 ~ 5월 7일)

2019년 모두 4회에 걸쳐 예정된 역사문학기행의 첫 번째 답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역사문학기행은 소설가 故 이문구 선생의 작품 <관촌수필>의 배경이었던 보령시를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1. 일 시: 2019년 5월 11일(토) 09시~18시
2. 장 소: 보령시 일원
3. 내 용: <관촌수필>의 배경을 찾아 만나는 보령시 일원
4. 참 가 비: 20세 이상 1만원
5. 세부일정

일 정	내 용	비고
09:00~10:30	전주대학교 -> 화암서원 이동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산 27-1
10:30~11:30	화암서원 및 성주사지 답사	
11:30~12:00	화암서원 -> 관촌마을	보령시 대천동 387
12:00~13:00	관촌마을 답사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한산 모시관 및 신성리 답사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125-1
16:00~17:30	신성리 갈대밭 -> 전주대학교	

※ 연구원 사무국으로 5월 7일까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시는 분에게 관촌수필 해석 요약본과 탐방지역 소개글을 전해드립니다.

○ 제3차 해외역사탐방 신청 안내

1. 탐방기간 : 2019년 8월 1일(목) ~ 8월 7일(수) <6박 7일>
2. 탐방지역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3. 주방문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레닌 언덕, 성 바실리 사원, 크렘린 궁, 우주박물관, 김규면 장군 묘소, 에르미타주 박물관, 도스토옙스키 박물관, 볼쇼이 극장, 붉은 광장, 민영환 숙소, 대한제국 공사관, 이범진 공사 순국지, 네바강, 피터폴 요새 및 성당,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가 묘역, 뱃머리 등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궁전, 푸쉬킨 박물관 등)
4. 참가인원 : 연구원 회원 및 시민 25명(회원 우선 선발)
5. 참 가 비 : 1인당 2,500,000원
7. 입금계좌 : 전북은행 505-13-0345110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8. 신 청 : 연구원 사무국, 063)286-3005, hangoyeon@hanmail.net
9. 신청기간 : 2019년 5월 10일(금) 마감
10.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참 조
여권사본	신청시 즉시 제출(jpg 파일 전송)
선입금 참가비	250,000원

11. 신청방법 : hangoyeon@hanmail.net (5월 10일 18시 전송분에 한함)

* 신청 후 확인 요망 (063-286-3005 / 010-6275-0409)

참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패전처리 투수의 기적 (1984년 5월 5일)

야구의 정규 경기는 9회까지이다. 한 회에 아웃 3개이니 27개의 아웃을 잡으면 한 경기가 마감되는 것이다. 보통 2시간 30분에서 3시간 30분사이가 걸리는 한 경기에서 투수가 한 개의 안타도 맞지 않고 점수를 하나도 주지 않았을 때 이를 "노히트노런"이라 부른다. 얼마 전 한국프로야구에서 모처럼 노히트노런 경기가 나왔는데 외국인 투수였다.

1982년 시작된 한국프로야구에서 37년 동안 노히트노런은 불과 열 네 번이 있었다. 선동열, 송진우, 박동희, 김원형, 정민철 등 야구를 좀 아는 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선수들이 대개 그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확률상으로 한 선수가 일생동안 1000경기를 던져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고 불세출의 투수라 칭해지는 최동원이나 박철순도 프로야구에서 이룩하지 못한 일이다.

한국프로야구 최초의 노히트노런 주인공은 스타와는 거리가 먼 조연급 선수였다. 아니 사실 조연보다도 더 주목받지 못하고 팀이 지는 경기를 매조지하는 패전처리 투수였다. 1984년 그가 거둔 유일한 승리가 바로 노히트노런 경기였고 최종 성적은 1승 8패였다.

그는 1960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광주 서림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살고 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방승환이었다. 그런데 그가 9살 때 정읍역에서 잃어버린 동생이 10년이 지나도 생사가 불분명하자 동생의 호적을 정리하던 아버지가 실수로 멸절한 그의 호적을 말소하는 바람에 동생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방수원. 그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야구를 시작해 광주의 야구명문 광주일고에 입학했지만 빼어난 선수는 아니었기에 어렵사리 영남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광주항쟁 때는 계엄군에게 구타당하는 시민을 구하고 후배 선동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여관으로 도망쳤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다.대학교를 중퇴하고 1982년 개막된 프로야구로 뛰어들었다.

훗날 그는 노히트노런 경기가 열린 날, 스스로 2이닝만 던지면 자신의 역할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마운드에 올랐다고 한다.

“2시 경기였는데 날씨가 참 화창했소. 2회를 마친 뒤 난 내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덕아웃으로 들어와 스파이크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었죠. 그런데 더 던지라고 합디다. 4회 선두타자(김대진)에게 첫 볼넷을 내주자 아니냐 다를까, 김응룡 감독이 나오더라고. 바뀔 줄 알았지. 그런데 웬일인지 다시 들어가네. 아마 준비된 투수가 없었나 봅니다. 5회까지 7-0으로 앞섰는데 6회 선두타자(김정수)를 볼넷으로 내보내니 감독이 또 나오려다 도로 들어가더라고요.”

- 노히트노런 프로 1호 방수원, 프로골프 선생되다 - (동아일보. 2009. 02. 12 기사 중)

평소 아무도 던지고 싶어 하지 않는 지고 있는 경기에 나가 18.44m 떨어져 있는 홈베이스에 공을 던지며 누군가는 해야할 일을 묵묵히 수행했던 방수원에게 그날은 분명 인생 최고의 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유로 그날을 기억한다.

“노히트노런보다 완투를 해냈다는 게 더 기뻐요. 난 2이닝짜리 투수가 아니다, 믿고 맡겨만 주면 나도 완투를 할 수 있다는 걸 김응룡 감독에게 보여줬다는 게 더 흥분됐어요.”

- 노히트노런 프로 1호 방수원, 프로골프 선생되다 - (동아일보. 2009. 02. 12 기사 중)

그 경기는 당연히 방수원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노히트노런이었고 은퇴할 때까지 유일하게 경기 전체를 오롯이 책임진 날이었다. 1989년까지 선수생활을 하며 그가 기록한 최종 성적은 18승 29패였다. 한 해에 20승을 넘겼던 투수들도 있었기에 8년 동안 조연보다 낮은 조연으로 그가 써내려간 기록은 그리 뽐낼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가 1982년 해태타이거즈의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 투수였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 당시 투수가 6명 뿐이던 해태는 원정경기였던 개막 당일 버리는 경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선발투수를 맡겼다. 3월 28일 지금은 사라진 부산구덕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개막전에 등판했던 그는 2:14로 참패당한 경기의 패전 투수로 기록되고 만다.

이듬해 명장 김응룡이 감독으로 부임하고 잘생긴만큼 야구도 잘했던 이상윤이 컨디션을 되찾자 땀뿡 선수로 물러났게 된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조명을 받고 스포츠신문 일면에 나던 주연들이 “피곤하다”고 하면 그들의 어깨에 휴식을 주기 위해 묵묵히 마운드로 걸어가던 이가 바로 방수원이었다. 그는 1984년 5월 5일 짜릿했던 승리의 기억을 “최고의 선수” 방수원이 아니라 “인간” 방수원을 세상에 선언한 날로 기억하고 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부처님 사리모신 설악산 봉정암, 여섯 번째 이야기 - 노을빛 고운 진신사리탑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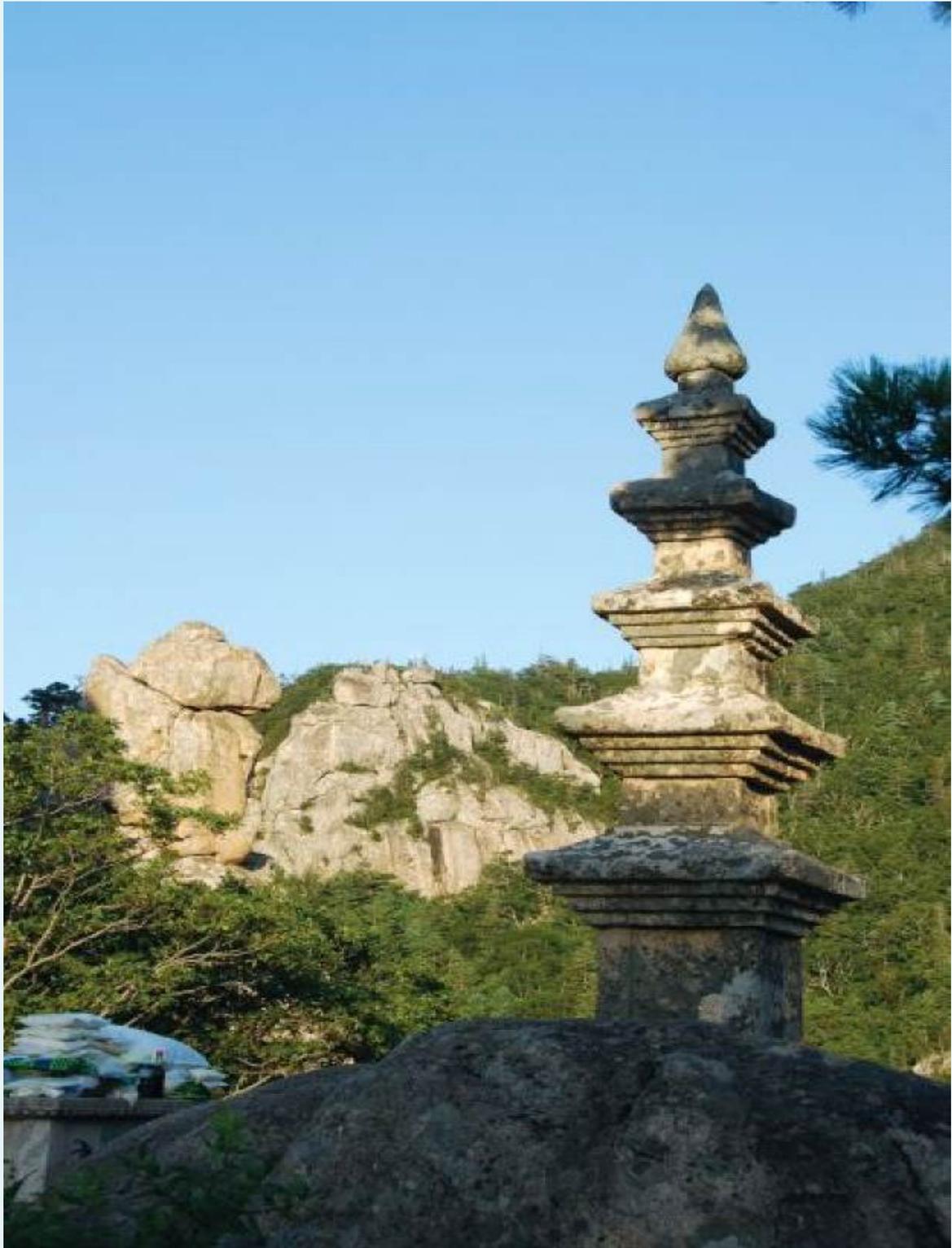
봉정암을 찾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곳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진신사리탑이다. 봉정암 서쪽 암벽 능선에 자리 잡은 탑으로, 기단도 조성하지 않고 그냥 천연의 바위 위에 오층의 탑신을 세운 소박한 형상이다. 그 앞의 석등 하나가 벗이라면 벗이지만, 언제나 많은 기도객들에게 둘러싸여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하루 스물네 시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오체투지를 하고, 향을 피우고, 초를 밝히고, 독송을 하고, 염불을 하고, 묵상에 빠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그득하다. 가장 높은 곳에 그것도 부처님의 뇌사리를 모셨으니, 그 영험함을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가늠해 볼 도리가 없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와 밤이 새도록 기도를 올리니, 사뭇 엄숙하고 숙연한 분위기가 향내와 함께 퍼져 나간다. 저녁 어스름이 찾아들면, 종일토록 이를 바라보던 해님 역시 환희심에서 스스로를 장엄하게 불태운다.

맑은 날 이곳에서 보는 석양은 차라리 장쾌하다 못해 애절하기까지 하다. 절묘하다 못해 종내는 서럽기조차 하다. 저 아래 용아장성을 건너 서쪽으로 내려앉는 저녁 해님은 수많은 상념과 후회를 불러온다. 순간순간 바뀌어 가는 장엄하고 황홀한 광채는 사람들을 점점압도한다. 마침내 벽찬 감동 속에서 무아지경으로 빠뜨린다.

진신사리탑의 저녁놀은 변화와 소멸의 진리를 천천히, 그렇지만 강렬한 빛으로 전해 준다. 그래서 만해선사는「알 수 없어요」라는 시에서「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라고 찬탄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떠날 때의 님의 얼굴」을 이곳의 석양에서 보았는지 모를 일이다.



봉정암 진신사리탑 봉정암 서쪽 암벽 능선에 기단도 없이 탑신을 세운 소박한 모습



진신사립탑에서 본 노을 차라리 장쾌하다 못해 애절하고, 절묘하다 못해 종내는 서러워서 저절로 눈물이 나는 빛이다.

언젠가 나는 이곳에 올라 노을에 녀을 앗긴 스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부처님이 설하신 화엄장엄을 현실에서 목도하는 양, 스님은 미동도 없이 앗아 있었다. 진리의 빛을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양, 스님은 고요히 그림처럼 앗았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여 주시는 부처님의 말없는 설법에 스님은 그냥 돌이 되었다. 그날의 황홀한 석양과 구도자를 나는 깊은 감동으로 지켜보았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침묵에 잠겼다.



좌선한 스님 부처님이 설하시는 노을빛 화엄장엄 앞에서 그날, 스님은 하릴없이 돌로 화했다.

- <천년암자에 오르다>는 앞으로 매주 뉴스레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흐름출판사 한명수 대표님과 유영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는 <하늘을 떠받든 대청봉>을 만나보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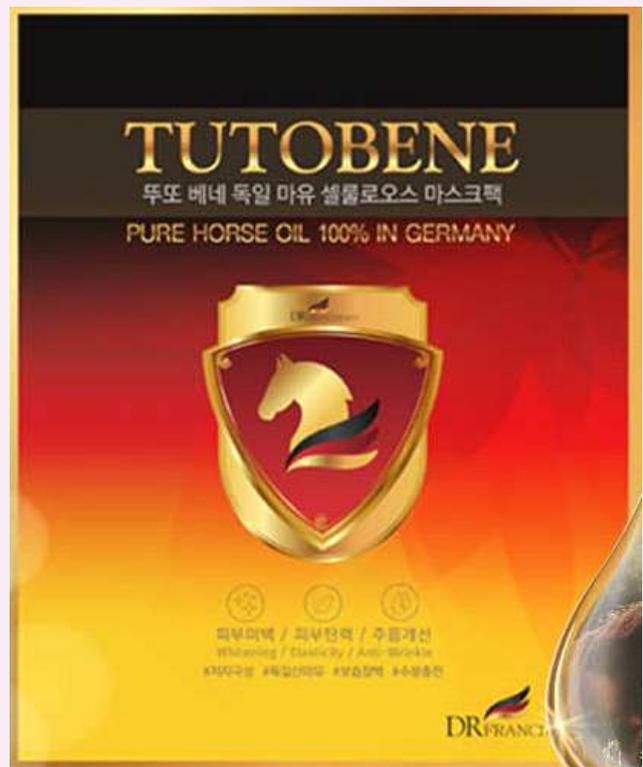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